

‘문학의 해’보다 ‘저작권의 해’를

이정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총무이사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나선 '96 문학의 해가 출발 당시 뼈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시효과 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민족문학작가회의측의 반발과 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적 행사에 치중되어 있다는 시인·소설가들의 불평 때문이었고, 사실상 문인들의 처지를 볼 때 그러한 반발과 불평은 당연하다 하겠다. 혹자는 문학의 해가 문인을 위한 해는 아니라고 했었지만 이는 빗나간 소리다. 문인을 떠난 문학이나 독자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작품을 쓰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작품을 즐기도록 설득하는 일이 쉬운 것인지 의문스럽다.

물론 발표된 사업중에는 ‘번역원 설치’나 ‘근대한국문학관 개설’ 등 그런대로 의의있는 것도 있으나, 문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정보화시대에 사는 현대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저작권 보호의 사업이나 행사는 혹시나 하고 살펴보아도 역시나 아무 구석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문인들의 불평도 주로 저작권과 관련된 푸념임에 주의해야 한다. 문인을 포함한 저작자들이 작품활동에 비례해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저작권인데 우리의 전체 사회가 이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은 데에 큰 문제가 있다. 첫째는 원고료 문제이고, 둘째는 이른바 인세 즉 저작권료의 문제이다. 소설가 한천석씨가 동아일보에 쓴 글에서도 인건비, 제작비, 책값이 20배쯤 오르는 지난 수십년간에 원고료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인세 수입도 그 날이 그 턱이라는 지적이다. 그나마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태도 있어 문학인을 거지 취급한다는 것이다. 원고료는 그야말로 주는 사람쪽의 의사에만 달려 있으니 오를 리가 있겠는가? 받아야 할 권리자들이 힘이 약해 울려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인가? 글 쓰는 이들이 힘을 합쳐 협상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생긴 것이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의 활동이다. 원고료 흥정과 수령을 모두 이런 단체에 맡겨 단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예컨대 원고료를 물가 연동제로 인상 가능하게 해야 합리적인 원고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창작의욕이 늘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와 그 결과를 전체 사회가 누리게 된다. 그렇게 돼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저작권 단체는 적합한 출판사를 연결시켜주고 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모아 편집저작물을 출판하고 싶어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도 이미 신탁받은 것을 바탕으로 즉시 이용허가해주는 편리한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자는 열심히 창작활동만 하고 작품의 재산관리는 저작권 전문 단체가 맡아 하는 것이다. 물론 대접을 못받으면서라도 글이 출판만 됐으면 하는 수준 미달의 저자 몇몇 사람과, 글이 너무 잘 팔려 개인적인 재산관리인을 두는 몇몇 고고한 저자들의 참여까지 바랄 수는 없다.

단체교섭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문인과 그밖의 저자들 스스로가 힘을 합칠 줄을 몰라 당연한 권리가 박탈되고 침해되고 생계가 영세해져서, 결국 원고료와 인세에만 의존해 사는 프로 작가가 별로 없을 정도로 창작 환경이 열악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문학의 해’ 잔치를 벌여 놓고서도 어느 구석에서도 ‘저작권’이라는 작가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장르별로 문학의 해까지 치르면서 모든 예술-학술 창작을 관통하는 저작권을 돌보지 않으니 현실적 행사 위주의 해라는 비판도 받을 만하다. 차라리 ‘저작권의 해’를 설정하고 원고료와 작품료를 물가 연동제로 제도화하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벌인다면 모든 분야의 창작인들이 얼마나 환호할까?

인터뷰 2 “열린 출협, 일하는 출협으로 다시 태어날 터”
대한출판문화협회 신임 회장 나춘호씨

3 “공과 사를 분명히 가르는 원칙 지키겠다”
한국출판협동조합 신임 이사장 박기봉씨

긴급 취재 4 저작권 태풍에 갈곳없는 온실 속 책들
7월 개정 저작권법 발효 앞두고 파장 커

출판 논란 6 ‘고통이 역사적 책무’인 문화후진국의 비애- 최금수
《에로스 훑쳐보기》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의 조치를 보고

확대경 7 예술성과 대중성 갖춘 ‘산소같은’ 만화- 임화인
오세영·이희재·주원수·김상택·박재동 등의作品集

출판 화제 8 한글세대에 맞춰 풀이한 우리의 고전

출판계 소식 9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도서정보 서비스-외

출판 화제 10 비주열한 편집에 읽을거리 풍성한 홍보지들
자사의 신간소개 넘어 다양한 기획으로 꾸며

고전 속의 독서론 12 오직 독서만이 살 길이다- 정약용
13 올바른 글은 쉬워야 한다- 허균

책이 있는 에세이 14 나의 방만한 책임기에 대한 고백- 최태만
15 어수룩한 책사랑 이야기- 이현주

책과 사상 16 ‘타자와의 열린 만남’의 사유- 강영안
레비나스의 사상과 《시간과 타자》

문화 시평 18 현기증 나는 ‘재즈’의 축복- 서동진

서평 19 금장태 《퇴계학파의 사상》- 안병주
20 강진호 《한국 근대문학 작가연구》- 장영우
21 화이트헤드 《관념의 모험》- 김상환
22 프레이저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이윤영
23 오스틴 《페미니즘과 연극비평》- 김미희

책과 영상 24 베트남전 메시지의 수많은 방정식

정보 라이트 25 번역물 찾아내기 ③- 조승훈

해외시간 리뷰 26 이탈리아 철학자 보라도리의 《미국의 철학자들》- 이봉재

재미있는 기획산책 27 인간에게 소외된 역사의 틈새- 장익순

이 책 그 사람 28 《한국을 대표하는 빛깔》 펴낸 최승범씨
《축구공 위의 수학자》 펴낸 강석진씨
31 《성의 기원》 펴낸 김학현씨

새책 흐름 30 산문의 진수 담은 고급에세이·외 / 문학·예술
32 옛 선인들의 숨결같은 이야기·외 / 어린이
34 신간안내 / 42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이중환